

교촌은 이런 치킨 입니다



[느리다]

2번 튀기고
75번 붓질
교촌은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요리니까

[얇다]

치킨을 시켰는데
튀김옷이 오면
안되니까
튀김옷이 얇아야
맛이 제대로 배니까



[유난스럽다]

하루 꼬박 숙성시킨 닭과
고르고 고른 천연 꿀
그 누가 뭐라 해도
음식 앞에선 유난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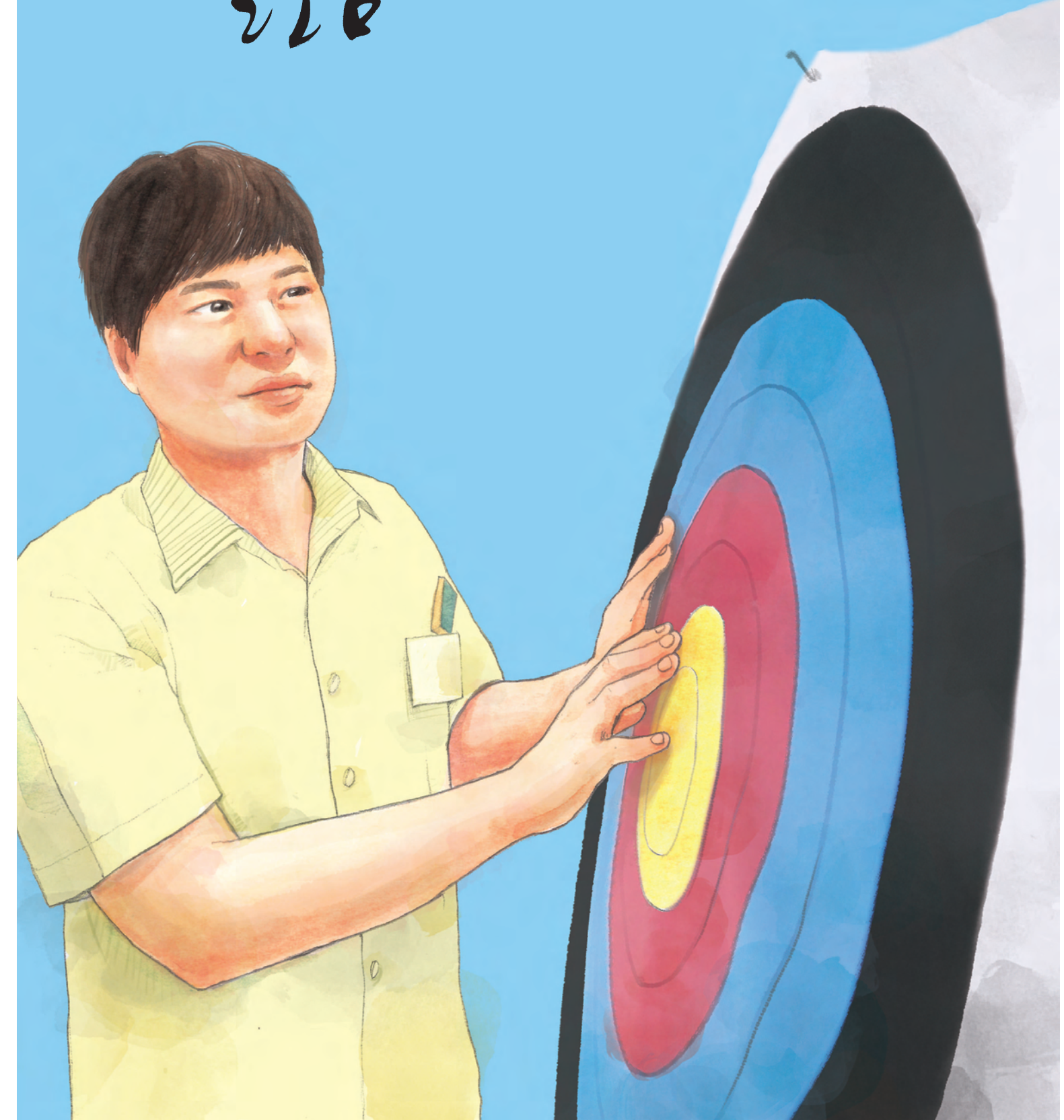
[가차없다]

합성첨가물에는
가차없다
좋은 재료가 아니라면
가차없다
건강 앞에는 가차없다

빛을 주는 시각장애 인

이웃을 내 몸 같이,

제호의 '빛'은 육안으로 보이는 빛을 넘어서 희망, 사랑, 행복을 뜻합니다.





제호 격월호 「빛을 주는 실로암」
 발행일 2016년 7월 20일 통권 126호 이사장 김선태 발행인 김미경 편집인 함요한, 김은애
 발행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주소 0875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은천동 931-7)
 TEL 02, 880, 0500 FAX 02, 887, 1120 E-mail silwel@chol.com Homepage http://www.silwel.or.kr
 트위터 https://twitter.com/silwel2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ilwel2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silwel.do
 Telnet bbs.silwel.or.kr Web BBS http://web.silwel.or.kr ARS 02,880,0900 문의 홍보팀 02,880,0867
 디자인 인쇄 우리미술 02, 2275, 6960

05+06
 May June



오늘 하루에 씻어야 할 그릇은 단 하루치뿐이다.
 내일 씻을 그릇이나 모래의 그릇 그리고 1년 치의 그릇을
 씻을 일까지 미리 생각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질리고 불안해져서
 오늘의 그릇을 씻는 일조차 자신이 없어진다.

미래의 실업, 결혼, 아이를 갖는 일, 나이 들어 병드는 것,
 고독사 등을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것은
 마치 더러워지지도 않은 미래의 그릇을
 설거지할 걱정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

사사키 후미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Contents



04 **포커스**
 관현전통예술단, 몽골 공연
 제3회 한마음 축제



08 **새소식**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양궁교실 시작



10 **희망나눔**
 '큰 절' 제33기 자립생활기술 훈련생 인터뷰_김춘호 님

12 **사랑나눔**
 활동보조수기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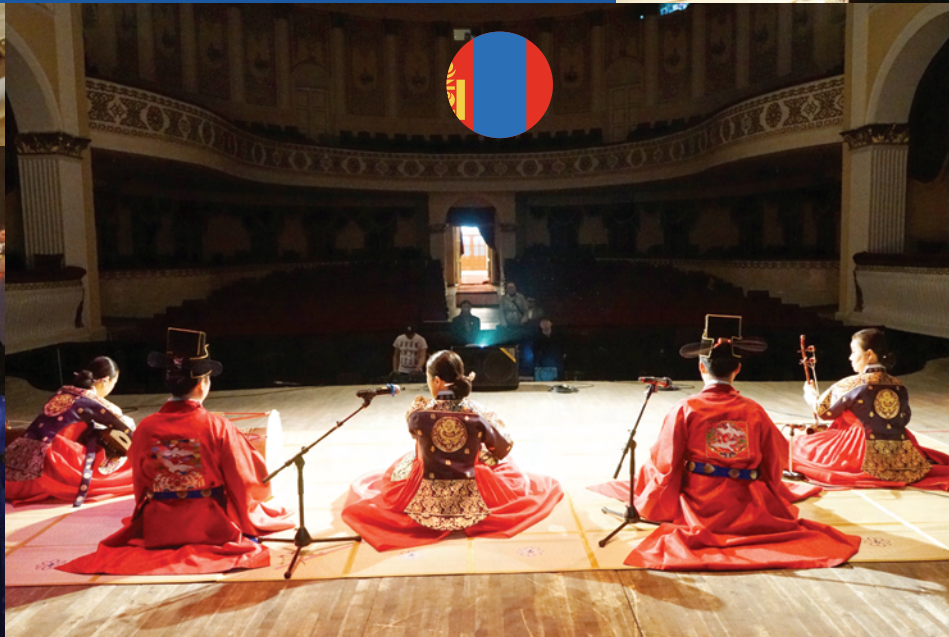
14 **해피스토리**
 2016년 5월~6월 사업 현장

18 **미리보기**
 8월~9월 행사 안내

19 **나눔플러스**
 후원 안내



몽골에 울려 퍼진 한국의 소리, 제11차 ASEM 정상회의를 기념하며



2016년 몽골의 분위기는 공항에서부터 심상치 않았다. 7월에 개최되는 ASEM정상회의는 아시아와 유럽 각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 진행되는 국제회의로써, 개최국이 된 몽골 울란바토르는 색다른 설렘과 긴장감이 만연했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 제11차 ASEM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여 몽골에서는 특별한 순회공연이 시작되었다. 주 몽골 대사관은 한국의 관현맹인전통예술단(단장 최동익)을 초청하여 ASEM회의 개최를 기념하고 한류의 근간, 우리의 소리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 곳곳에서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공연이 개최되었습니다. 몽골국립오페라발레극장, 몽골국립재활개발원, 몽골국립음악무용학원, 23번학교(일반학교), 55번학교(특수학교), 몽골한인회 등 정부부처 관계자, 장애인, 학생, 한인 등 예술단이 마주한 관객층 또한 다양했습니다. 특별히 몽골의 대표적인 무대라 할 수 있는 몽골국립오페라발레극장에서 진행된 공연(5월 25일)에는 제11회 ASEM회의 관계자 및 몽골 정부 부처 관계자, 각국 대사관, 몽골 시각장애인연합회 등 많은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았는데요. 이날 공연에는 몽골 현지 13개의 대표 언론사들이 취재를 위해 참가하여 예술단의 공연 현장을 스케치하기도 했습니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만파정식지곡', 판소리 춘향가' 사랑가, 대금과 피아노 2중주' 다향', 시창' 관상용마', 거문고 독주 '출강', 설장구를 위한 놀이' 소리빛' 등을 선보였습니다. 공연 하나 하나가 끝날 때마다 관객석에서 터져 나오는 박수소리는 과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탁 탁 탁, 경쾌하게 울리는 군대식 박수는 초원을 달리는 말의 말발굽 소리처럼 공연장을 에워쌌습니다. 마침내 무대 위 박자와 관중석의 박수 소리는 하나의 어울림으로 조화되었습니다.

예술단에서 타악을 맡고 있는 이진용 단원은 "관객들의 반응과 호응이 좋았다. 호쾌한 박수소리는 연주의 연기를 더해줬다."라고 공연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몽골의 대표적인 민요를 몽골 마두금팀과 합주했던 시간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마지막으로 선보인 몽골 민요 공연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공연 중간에 특별 공연을 펼친 몽골시각장애인연합회(MNFB) 마두금팀과의 콜라보레이션은 연주자와 관객 모두에게 특별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볼 수 없는 이들이 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연주한 음악은 이례 없이 특별했습니다. 몽골국립재활개발원에서의 공연 이야기인데요. 무대를 소개하는 자리, 무대 옆에 서있는 한 여성은 놀랍게도 수화통역사였습니다. 예술단에게는 예상치 못한 관객. 당황한 모습도 잠시, 곧이어 예술단은 들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열정으로 연주하기 시작했는데요. 대부분의 관객들은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음악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연장을 울리는 타악기의 진율과 흔들림으로, 가슴을 울리는 대금 소리의 진동으로. 우리의 음악은 국가와 언어를 초월하고 더 나아가 장애를 초월하여 마음에 가득한 삶의 소리였습니다.

주몽골대한민국대사인 오송대사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을 알게 된 건 2013년 한국·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 공연 당 시부터였다. 혼자 영상채널을 통해 공연을 찾아 본 후엔 꼭 한번 몽골에서 공연을 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몽골은 우리나라와 정서적, 문화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은 나라이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을 통해서 우리의 가락은 물론, 장애인의 삶에 대해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몽골 초청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공연을 보면서 이 자체가 인간 승리임을 느꼈고, 비장애인들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데에 감명을 받았다. 무엇보다 몽골에서 이와 같이 감동스런 무대를 직접 볼 수 있어서 영광이다"라고 공연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본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KEB하나은행의 후원과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대사 오 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행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우리 소리를 전하고 희망을 선사하는 예술단이 되길 기원합니다.

시각장애인가족 축제 한마당 가족이 하나되는 5월, 제3회 한마음축제



5월이 따뜻한 건 비단 날씨 덕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의 달답게,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 기념일들은 5월을 더욱 따뜻하게 해줍니다. 실로암에서는 시각장애인 1,000여명이 함께 모여 넓은 의미의 가족 잔치를 벌였는데요. 이룬 잔치, 구경 한번 해볼까요?

출발을 알리는 호각소리에 너도 나도 내달리는 뽀박질들, 현장은 숨가쁩니다. 불타오르는 승부욕에 가끔은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1년에 한 번, 모두가 함께 하는 이 시간은 소중한기만 합니다. 지난 5월 7일 토요일, 여의도 국회운동장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가족들이 한데 모여 웃고 떠들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한마음축제, 이 날 행사에는 최동익 국회의원, 박영선 국회의원, 오신환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안현식 부총재(한국국제연합봉사단) 등의 귀빈들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달리고 달리고

체육대회를 빼고 한마음축제를 논할 수는 없다! 훌라후프, 줄넘기, 줄다리기, 남녀팔씨름, 윷놀이, 일심동체 기차놀이,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체육경기가 준비되어있었는데요. 평소 야외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도 이날 만큼은 마음껏 경기에 참가할 수 있기에 체육대회에 대한 기대감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뜨거운 땀방 아래서도 지칠 줄 모르는 참가자들의 열기와 참가자들을 서포트하는 봉사자 및 직원들의 열정은 이기고 지는 승부를 떠나 멋지지만 합니다.

이색 체험부스

운동장 가장자리를 따라 둘러싼 체험 부스는 축제의 재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양궁체험, 보드게임, 건강체크, 손도장, 부채만들기 등 이색적인 체험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어린이놀이터, DIY만들기, 페이스페인팅, 구연동화 코너는 아이가 있는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놀이터 에어바운스는 아이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죠. 이 외에도 복지관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소개 부스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부스에서는 재미있는 퀴즈와 게임으로, 한식요리시연회에서는 말이 필요 없는 맛난 음식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로, 오가는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돕는 손길, 파트너십

백조가 자태를 뽐내며 호수 위를 유영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래서 쉼 새 없이 움직이는 발 덕분인데요. 이렇듯 풍성한 축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선 많은 섬김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KT&G 상상유니브 대학생 봉사단, 한국유엔봉사단, 한국국제연합봉사단의 봉사단원들은 더운 날씨 속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맑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주었는데요. 점심식사를 할 때에는 참가자들의 식사를 도와주며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축제를 더욱 푸짐하게 만들어 준 기업의 손길도 빠트릴 수 없죠. 슈퍼리어재단, 교촌치킨, SPC그룹, 미래에셋증권, 우리은행, 양봉량, 우리미술, 해피빈, 대농할인마트, 서울문화로타리클럽, 대명전산, 한

마음할인마트, 하나은행, 아워홈, 유한특판 등 많은 기업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뭘든 마무리가 중요한 법, 한마음축제의 피날레는 유쾌 그 자체였습니다. KBS재능기부단의 축하공연이 이어졌고 악살스런 개그와 유머로 한바탕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경품 추첨 시간! 많은 상품을 준비했음에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모습들이 오늘의 행사를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행사를 마치며 김미경 관장은 “한 해가 더 할수록 한마음축제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 같아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한마음축제를 통해 서울, 더 나아가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단합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하셨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축제가 발전해가는 이유는 이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년의 한번, 이곳에서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재미와 가족됨. 내년엔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진정한 화합과 소통을 이루는 가족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양궁교실 이야기

타악-주변을 감싸는 공기까지 얼어붙은 순간, 반동에 의해 힘차게 뻗어나가는 화살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 과녁에 내리꽂힌다. 한 쪽 눈을 감고 몸의 모든 기운을 화살이라는 가느다란 막대 한 점에 온전히 모아 쏘아댄다. 과녁판 중앙인가 가장자리가, 빨강 노랑 파랑의 색들은 순위를 매겨준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시각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양궁, 여기서 질문을 던진다. 과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과녁을 겨눌 수 있는가?



실로암 문화체육지원센터에서는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대중화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양궁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양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화요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2회(화, 목)씩 진행하여 11월 30일 까지 이어지는데요. 현재 16명의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첫 걸음을 내딛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이 뒷받침되었습니다. 그 중에도 석동은 감독과 김광호코치를 빼놓고 양궁교실을 논할 수는 없는데요.

석동은 감독은 양궁 장비와 기술을 한국에 보급해 '한국 양궁의 어머니'로 불리는 고(故) 석봉근 전 대한양궁협회 고문을 부친으로 두셨습니다. 선수 시절 전국종합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5개나 세우고 이탈리아 성인 대표팀 감독을 맡아 런던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안겨주

었는데요. 해외에서 대중화된 시각장애인 양궁이 국내에서는 시도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사명감을 느낀 석동은 감독은 국내에 시각장애인 양궁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문화체육지원센터와 함께 양궁교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대지 기증자로 목지관의 기틀을 마련해주신 **김광호 코치**는 1972년도 전국남여양궁중별선수권대회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준급의 양궁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석동은 감독과는 오랫동안 돈독한 우정을 유지해왔으며, 환상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양궁교실의 큰 기동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16 양궁교실 프로그램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양궁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다면, 우선 그 학생은 거기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부분은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다닌 고등학교 양궁 선생님의 생각은 달랐다. 할 수 있다고 믿고, 표적을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연구해보자고 선생님은 오히려 나를 설득했다. 활을 쏘기 위해 내가 서 있을 장소와 표적을 고정해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각도가 잘못되지 않도록 교실 책상을 내 앞에 반듯하게 놓아두었다. 나는 그 책상 위에 서서 어깨를 똑바로 하도록 노력했다.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볼 때 내 얼굴이 정확하게 표적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에 화살을 넣고 화살이 나의 정면에 있는 표적을 향하도록 방향을 맞춰 쏘았다. 쏘고 또 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양궁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절실하게 얻은 것은 '세상에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일상적인 생각에서 나 자신을 탈출시키는 지혜였다. 시각장애인에게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도 창의력 있게 그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일로 만들 수 있다.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중 신순규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조준틀이란?
활을 당긴 자세에서 과녁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각장애인용 틀을 말합니다.

복지관 작은 체육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면 영락없이 화살과 과녁이 준비됩니다. 아직은 자세 잡기도 어렵습니다. 몇 달간의 교육으로 프로선수가 만들어지길 기대하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화살을 집어 들었습니다. 한 손을 앞으로 쪽 펼치고 과녁을 향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과녁을 향해 화살을 들이댈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이라면, 세상 그 무엇이 두려울까요?
지금쯤 작은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지만, 언젠가 이 안에서 세계적인 시각장애인 양궁선수가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매주의 훈련시간은 미래를 향한 또 하나의 화살입니다. 이 화살이 어디를 꿰뚫게 될 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절

제 33기 자립생활 기술 훈련생 인터뷰
김춘호 (시인)

“생전 처음 만져보는 점자, 무심코 지나쳐버린 지하철, 공공건물의 현관 등에서 손끝에 닿았던 좁쌀알 같은 글자들이 우리들의 새로운 언어로 다가설 줄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이끌어 주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님께 그리고 기초 재활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한없이 깊은 감사의 큰절을 올립니다.

지난 2월 22일 이곳의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만 해도 저희는 천 길 낭떠러지에 던져진 너무도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랬던 저희 8명의 기초 재활교육 33기 교육생 모두가 지금은 이렇듯 맑은 얼굴로 웃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가진 것 전부를 아낌없이 내주려고 애써주신 세 분의 전임 선생님! 컴퓨터 교육의 이주호 선생님, 점자 교육의 장용전 선생님, 활동교육의 봉하중 선생님. 이 분들의 진솔한 강의 모습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전맹인 장용전 선생님은 교육 사이사이 자신의 눈물겨운 추억을 곁들여 가며 배움이 곧 삶의 전부였다는 열강은 꿈속에서도 생생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지난 4개월은 날짜로 보면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에게는 배우고 듣고 보고 만져본 일들이 너무 많았던 긴 여정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만져보는 점자, 무심코 지나쳐버린 지하철, 공공건물의 현관 등에서 손끝에 닿았던 좁쌀알 같은 글자들이 우리들의 새로운 언어로 다가설 줄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생소한 글자는 익히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점판, 점관, 점필에 의한 글쓰기와 읽기는 정말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제법 쫓아가는 훈련생이라면 김정재와 김남수, 장안순 학우였다고 할까요?

이주호 선생님의 컴퓨터 교육 시간. 선생님은 이번 33기생 교육의 팀장으로 전반적인 진행을 보면서 가르치시는데 이 공부 또한 여간 고통스런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사람은 이미 마우스를 만져본 경험이 있지만 대부분 초심자여서 진행상의 혼란은 당연했습니다.

재미있을 성싶은 교육은 봉하중 선생님의 활동교육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보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팡이를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때는 정확한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오감(청각, 촉각, 후각, 미각, 감각)을 이용한 활동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쉽게 터득하고 익숙해지려면 오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흥미로운 교육은 홀로 할 수 있는 요리교실이었습니다. 볶음밥, 동태찌개, 매운 낙지볶음, 삼치무조림, 배추 겉절이, 닭매운탕 등의 조리법. 참으로 적절한 수업이었습니다. 김남수 학우는 여기서 배운 요리로 가족들의 즐거운 식탁을 꾸며보았노라 자랑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집에서 라면도 끓여본 경험이 없다는 최재용 학우는 어느 주일 점심식사 때 여기서 배운 요리 몇 가지를 만들어 식탁에 차려놓았더니 온 가족이 환호성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수업은 그들이 워크숍. 안면도에서의 1박 2일은 정말 맛있고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보드라운 모래사장을 한동안 거닐고는 저녁식사를 맞이했습니다. 국내 손꼽히는 해송 휴양림의 산책과 해수탕 목욕, 목재 주택에서의 숙박은 오래 기억될 하룻밤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 6·25전쟁박물관 탐방은 물론 경복궁과 남산의 산책도 즐거웠습니다.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에서 선후배 만남의 자리를 겸한 날들이는 어느새 다음의 재회를 꺼내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즐거웠습니다. 2시간쯤인가, 피톤치드가 쏟아져 내리는 숲길을 지극히 시골스런 해설자의 안내로 신선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할만한 배움은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분재교육입니다. 5월 어버이날을 전후로 한 시기의 카네이션, 철쭉, 가랑코에, 미니 슈퍼바, 천양금, 허브 로즈마리, 다육식물 등 생화 가꾸기와 조화 다루기였습니다. 한편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 <귀향>, <홍길동>의 감상은 새로운 문화의 체험이었습니다.

꿈같은 4개월, 그것은 천국 여행이었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건물은 물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 모두가 사랑이 가득한 낙원이었습니다. 우선 현관문을 들어서면 안내하는 민 선생님의 친절함 이따금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 식당 도우미들의 손길은 날마다 싸고도 맛있는 점심식사를 더욱 즐겁게 제공해줍니다.



오늘 약속된 시간을 마치는 기초교육 33기생 8명은 동료지지 프로그램에서 정말 귀중한 대화법(“만일 나라면”)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지혜도 배웠습니다. 각자 지은 별명과 함께 소개하면, 하양강하양, 허클베리 김남수, 천석꾼 김정재, 만석꾼 김춘호, 이쁜이 박영자, 장미 장안순, 꽃분이 정인화, 장학사 최재용은 이제 새로운 꿈을 안고 실로암을 떠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우정을 돈독히 해왔습니다. 가능하면 선생님들을 모시려 했으나 근무시간과 겹쳐 한두 번밖에 합석하지 못했습니다. 모임 명칭은 ‘좋은 만남’, 교육이 끝나더라도 매월 정기 모임을 갖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큰절을 올립니다.





2016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그들만의 우정이야기

우리는 서로를 '벗'이라 부릅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한 돌봄 서비스의 한 유형입니다. 활동보조인은 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 보조 등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각종 대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명칭은 서비스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해관계가 아닌 우정입니다. 그 은은한 동행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최우수상 수상 이용자 신재혁

6월 1일부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먼저 저를 도와주시던 선생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급하게 일을 그만두셔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취직을 하여 4일 후에 첫 출근이 잡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급한 맘이 앞서 누구라도 연결되었으면 하는 맘에 복지관과 통화를 하였고 하루 만에 선생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초창기시절부터 쪽 일을 해 오시던 분이셨고 지금도 센터가 아닌 이용자들이 수소문해 직접 부탁을 해 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기억되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현재 신림동에 모 회사에서 헬스키퍼로 근무 중입니다. 작년 6월 첫 출근으로 실로암 고용지원팀에서 출퇴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 지원 범위가 지하철역을 기점으로 한 회사로의 보행이었기 때문에 나머지(집까지의 이동)는 저 혼자서 익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방향감각이 좋은 편이고 평소 모험을 즐기는 저는 그 날 역시 선생님께는 따로 부탁드리지 않고 혼자 집까지 이동 중이었습니다. 무사히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가네. 아주??"
알고 보니 선생님은 제가 걱정되어 가사 일을 얼른 마치고 근무지에서부터 저를 몰래 따라오고 계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글로는 담을 수 없는 감사함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매일같이 제 뒤를 몰래 따라붙어 저를 많이 놀래주셨고, 지금도 비가 오면 스케줄이 없음에도 먼저 전화하시어 "오늘 어디 안 가니?", "너 우산 없어서 어떡하니?" 물어봐주시고 날씨가 추워질 것을 몰라

웃을 얇게 입고 간 날이면 퇴근 시간에 맞춰 외투를 가져다주시곤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자취생활은 불가피하였고 그 때문에 잠시나마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듯한 제 모습을 자화자찬 하기도 하였습니다. 언젠가 선생님이 집안일 때문에 하루를 못 오시게 된 날이 있었고 주말을 포함 3일 정도는 혼자 생활해야 했습니다.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보려 해도, 음식물쓰레기를 정리해 버리려 해도,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현재의 내 모습이구나. 선생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참 많이 배려해주시고 계셨구나.' 선생님을 포함한 많은 어른들은 제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그저 적당히 해줄 말이 없을 때 사용하는 상투적인 말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3일은 익숙해져 감사함을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해주었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글을 적다 보니 이렇다 할 에피소드도 아닌 그저 그런 일상을 장황히 적어 놓은 듯하네요. 하지만 선생님과 저는 이렇게 편안하고 웃음 가득한 일상 속에 지냅니다. 선생님은 관악구에서만 30년 이상 거주하셨고 자칭 본인을 터줏대감이라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남을 때면 선생님이 소개해주시는 여러 맛집들을 돌아다니며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저의 인생 고민들 혹은 어린 저로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공유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적인 면으로 보자면 활동보조인과 이용자는 분명 본인부담금과 할당된 시간으로 국한된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4년 넘게 서비스를 이용하며 느낀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인데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시간과 돈을 우선시하면 절대로 관계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도 매일 보면 사소한 트러블이 생기고, 친한 친구 역시 하루 종일 보면 단점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금전적인 부분까지 개입되어 있는 이 관계는 더욱이 예민해질 경우가 다분합니다. 이용자는 내가 갑이라는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되며, 활동보조인에게 내 일을 떠맡기는 식의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됩니다. 활동보조인 역시 이용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항상 주의 깊게 바라봐주는 마인드가 필요한 듯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도덕적인 개념이 완성 되었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며 시간과 돈만 생각해서는 절대 관계가 이어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렇게나마 감사한 마음을 적어볼 수 있게, 또 제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 내역

이용자	신재혁(최우수상), 최재혁(우수상), 이남기(장려상)
활동보조인	이예찬(최우수상), 송병현(우수상), 유미경(장려상)





복지관

감동과 어움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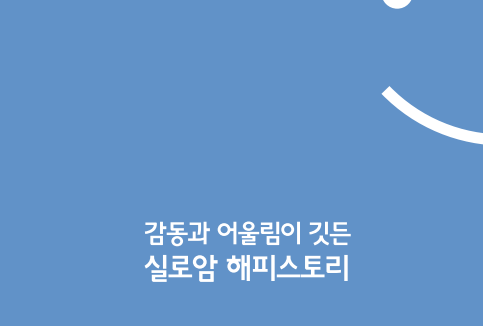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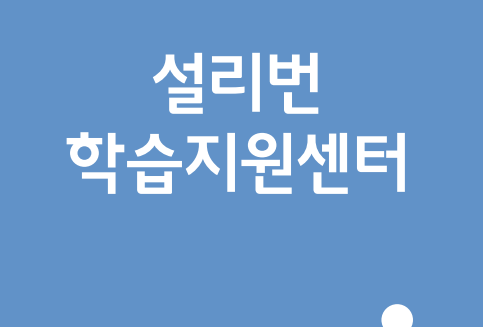
- 01 등산교실_05.20, 06.03 & 바다낚시_05.18**
문화체육지원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 이용자와 봄의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며 관악산, 이차산 등에서 등산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한 안면도 방포항 일대 잔잔한 파도 위에서 바다낚시를 즐기면서 큰 대어도 낚는 성취감을 경험했습니다.
- 02 이동직업평가_05.03,04,18,19**
울산, 경북, 경남, 전북 등 남부지역 인마수련원을 방문하여 수련생, 직업훈련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동 직업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0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차 나들이_05.21**
시각장애인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함께 춘천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으며 막국수체험박물관을 방문하여 막국수 만드는 체험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04 후원금&물품 전달**
· 신용보증기금(고양지점) 물품 전달식_05.30 : 삼계탕(25봉지) 및 은누리상품권(20만원) 기증
· 우리은행(서울대학교지점) 후원금 전달식_06.16 : 후원금 50만원 기부
- 상명대학교 자하교지편집부 후원금 전달_05.20 : 학교축제 후원부스(캘리그래피)를 통한 40,150원 기부
- 05 주간보호센터 어버이의 날 행사_05.08**
어버이날을 맞아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에게 시 낭송, 선물 전달, 케이션 증정 등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06 실로암배움울타리(공동생활가정) 쇼핑 프로그램_06.16**
평소 자유로운 쇼핑에 어려움이 있는 거주인들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매칭되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정서적 교류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 07 제33기 자립생활기술훈련 수료식_06.24**
중도실명인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및 일상생활 기술을 훈련하는 자립생활기술훈련 제33기생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 08 상반기 사랑나눔 바자회_06.24**
저소득중증시각장애인 물품지원을 위한 상반기 사랑나눔바자회가 복지관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학습지원센터

감동과 어움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 01 관현맹인전통예술단 공연활동_05.19, 06.09,16**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강릉단오제, 화곡초등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공연활동을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시각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02 보조공학기기 순회점검(대구대,우석대,공주대,나사렛대)_05.18~20**
보조기기를 대여 받은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활동을 돕고자 지방에 위치한 대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대여 기기 점검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03 음악적역·교정시양성교육(기관방문교육)-국민대학교 편_06.15**
국민대학교 음악대학 성악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적역·교정시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점역직업군에 대해 알아보고 시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04 제3차 시네토크_06.11**
영화해설사 윤희운 강사와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함께 보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애와 인간미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 05 음악재활아카데미-서양음악교실**
다양한 음악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성인시각장애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재활을 돕고자, 드럼교실, 바이올린교실, 보컬교실, 색소폰교실, 성악교실, 일렉기타교실, 통기타교실, 플루트교실, 피아노교실, 하모니카교실 등 10개의 서양음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리번 학습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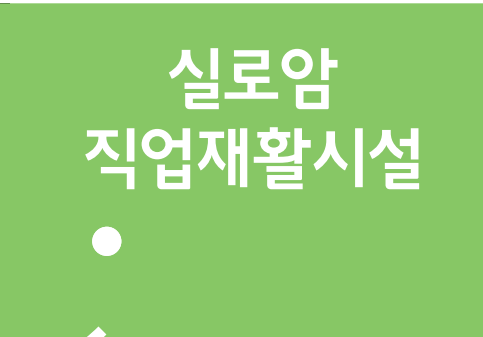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 01 이동도서관 연중**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도서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기증을 방문하여 필요한 점자 도서 및 교구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02 지역사회점자교실**
지역사회 인근 봉사단체 청사모(청운중을 사랑하는 어머니 모임)와 함께 점자교실 초급반과 점자 동화책반을 운영하여 점자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03 도란도란갤러리_05.12**
축각교재제작팀에서는 도란도란갤러리에서 진행한 이야기전의 후속 전시를 야외 잔디밭에서 진행했습니다.
- 04 시각장애학생 국악통합캠프 오디션_05.21**
'국악통합캠프' 참여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오디션이 진행되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여러 명의 학생들이 오디션에 참여했습니다.
- 05 시각장애아동가족캠프 '아빠, 어디가'_05.27~28**
'아빠와 함께하는 캠프'를 실시하여 양평 포니월드, 들꽃수목원, 말기체험, 영상편지 등 아빠와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 06 청소년교육지원사업 희망나눔교실_06.03**
연세대학교 사회봉사자들과 1차 중간평가회를 가졌습니다. 학습도우미 활동 소감 및 개선사항을 나누고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07 아동교육지원사업 역사체험교실_06.08**
서울맹학교 6학년 친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역사 체험으로 국립 4·19 민주묘지에 다녀왔습니다.

실로암 직업재활시설



- 01 직업훈련사업(사건요청-2번임사수료식(사진임))**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직종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공과로는 컴퓨터활용전문가 양성훈련, 바리스타카페창업훈련, 안마지압창업훈련, 베이커리창업훈련, 장애인점역교정사 양성훈련 등이 있습니다.
- 02 상반기 직업훈련 수료식_06.24**
컴퓨터활용전문가 양성, 안마지압 창업, 바리스타카페 창업, 점역교정사 양성, 베이커리 창업, 총 24명이 상반기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여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 03 실로암헬스케어센터 이전감사예배_05.03**
실로암헬스케어센터가 기존 832호에서 811호로 이전함에 따라 5월 3일 이전기념 감사예배를 진행했습니다.
- 04 태양과 함께하는 일일카페_05.07**
빅뱅 멤버 태양의 생일(5/18)을 맞아 태양팬클럽이 주관하여 팬카페회원들과 함께 일일카페를 진행했습니다.

2016 SightCity Frankfurt 2016 참가_05.18~20



SightCity는 매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 국제박람회로서 2003년을 시작으로 올해 13번째를 맞이하였으며, 시각장애인보조공학박람회 분야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시회입니다. 2016년엔 약 130개 이상의 시각장애관련 기관 및 업체의 전시부스 운영과 3,800여명 이상의 방문자가 참여하였는데, 최신 보조공학기기 전시회 뿐 아니라 시각장애에 관한 여러 포럼까지 진행되어 시각장애에 대한 국제적인 정세를 파악하는 데 좋은 네트워크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저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개발한 보조공학기기 또한 만나볼 수 있었는데, 바로 드림브레일, 전자동점자명함인쇄기, 실로암브레일입니다. 뉴드림브레일은 일반 랩탑 컴퓨터에 점자 디스플레이를 일체형으로 빌트인시킨 제품으로 해외에 많은 시각장애인관련 기관 및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점자 명함 인쇄기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았는데, 점자동점자명함인쇄기는 일반 명함카드에 점자명함의 내용을 인쇄하는 인쇄기로써 한 번의 세팅으로 전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만큼 효율성이 높았는데, 관심이 컸던 만큼, 제품에 대한 좋은 의견들도 많이 주셔서 앞으로의 기기 발전이 더욱 기대됩니다. 실로암브레일은 한글, 영어 점역과 점자 편집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텍스베리라는 점역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래된 역사만큼 여러 나라의 언어를 지원하고 점자편집이 편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데, 실로암브레일도 이러한 주요 기능을 더욱 개발하고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와 발맞춰 나아가는 실로암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여, 이젠 보조공학의 선두로써 전 세계를 이끌어가기길 기대합니다.



Program & Notice

행사 및 주요 프로그램 안내

음악재활아카데미-서양음악교실(하모니카/노래)

성인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모니카, 노래 등 서양 음악 교육을 진행합니다.

- 일 시 : 2016년 3~11월
- 장 소 : 본 복지관 그룹사운드실
- 문 의 : (02)880-0661~0666 음악점역팀

2016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

시각중복장애청소년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SeasonIII「Mind up! grow up!」

8월, 9월에는 일상생활교실, 집단음악교실을 특강으로 진행하여 대상 청소년 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합니다.

- 일 시 : 2016년 3~12월
- 장 소 : 설리번학습지원센터 교육실

2016년 서울시특별시 사회복지기금사업(장애인복지계정)

가족지원프로그램 '우리가족 파워업3'

시각장애자녀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족으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년 4~11월
- 장 소 : 설리번학습지원센터 교육실 및 외부 체험 장소
- 문 의 : (02)880-0603 가족지원센터

영어토론수업

원어민강사와 영어토론을 진행하여 외국어회화 및 토론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년 7~8월 중
- 장 소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외국어교육실
- 문 의 : (02)880-0646 디지털도서관

북콘서트

명사를 초청해 관련 작품을 함께 공유하며 시각장애인 및 지역사회주민들에게 폭넓은 독서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일 시 : 2016년 8월 11일
- 장 소 : 한국학생점자도서관
- 문 의 : (02)880-0645 디지털도서관

점역·교정사 시험대비 점자교육

점역·교정사 자격증 시험에 대비하여 점자교육을 진행합니다.

- 일 시 : 2016년 8월 16일~10월 21일
- 장 소 : 실로암점자도서관
- 문 의 : (02)880-0631 점역팀

효명장학금 수여식

효명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수여를 통해 학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년 8월 25일
- 장 소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강당
- 문 의 : (02)880-0854 고용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 기기 대여

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 기기 대여 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지원합니다.

- 일 시 : 2016년 8월 중
- 장 소 : 복지관
- 문 의 : (02)880-0534 정보활용지원팀

1박2일 힐링캠프

보행의 어려움과 신체적, 경제적 이유로 여가생활 참여가 쉽지 않은 시각장애 인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 일 시 : 2016년 8월 말
- 문 의 : (02)880-0825~7 지역사회지원센터

음악점자교육

음악점자 및 음악점역·교정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시각장애인 및 비시 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음악점자교육을 진행합니다.

- 일 시 : 2016년 8~10월 중
- 장 소 : 본 복지관 교육실
- 문 의 : (02)880-0677 효명음악팀

하반기 자립생활기술훈련 기초과정(34기)

중도시각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기초기술훈련을 실시합니다.

- 일 시 : 2016년 8~12월
- 장 소 : 복지관
- 문 의 : (02)880-0535 정보활용지원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차 나들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3차 나들이를 진행합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22일
- 문 의 : (02)880-0824 지역사회지원센터

취업자간담회

시각장애인 취업자 간담회 통해 취업자간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마련합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중
- 장 소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외부장소
- 문 의 : (02)880-0854 고용지원센터

음악점역·교정사 양성교육-기관방문교육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음악전공생을 대상으로 음악점역·교정사 직업 소개 및 인식 개선교육을 진행합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중
- 장 소 :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내
- 문 의 : (02)880-0677 효명음악팀

자격증취득대비교육 안내

사회복지사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취득 을 대비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 일 시 : 2016년 9~11월
- 장 소 : 복지관
- 문 의 : (02)880-0532~3 정보활용지원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후원계좌

하나은행 577-910002-13904 (예금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하나은행 577-810008-22104 (예금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요양원후원계좌

하나은행 577-910008-12104 (예금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시각장애인 개인수술지원

하나은행 577-910005-38004 (예금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CMS 정기자동이체 신청

전화문의 홍보팀 02-880-0868~9

※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내역

구분	복지관 후원	개인수술 후원	실로암요양원 후원	복지회 후원	총액
5월	8,404,220	555,000	4,972,360	6,661,825	20,593,405
6월	21,904,095	617,560	5,681,974	1,747,807	29,951,436

후원자명단

복지관 후원

강문창 김미숙 김미혜 김민석 강은아 강이슬 강창구 강현희 강혜란 강희원 고미미 고선용 고선화 고슬기 공현정 광정아 광현용 구승경 권정홍 권정희 권희정 김경국 김경아 김경애 김계심 김광훈 김규남 김근하 김기동 김기쁨 김기순 김기연 김기택 김다혜 김도연 김동진 김말년 김명애 김무는 김미경 김미선 김미영 김미정 김민경 김민석 김민석 김민정A 김민정B 김민혜 김병노 김보정 김상수 김상영 김선애 김선하 김성애 김성자 김성진 김성화 김성훈 김세연 김소정 김소희 김송지 김 수 김수연 김수영 김수정 김숙현 김순호 김슬기 김애리 김양수 김영미 김영순 김영은 김영준 김영진 김예리 김예은 김용호 김우도 김원경 김유진 김윤진 김은민 김은애 김은영 김잔디 김재민 김재성 김재환 김정은 김종규 김주리 김준영 김 중 김지혜 김진수 김충현 김태희 김하연 김현도 김현순 김현정 김형식 김혜란 김혜인 김호남 김효원 김희연 김희재 나가연 나민형 나병택 나서휘 남기운 남우현 노계정 노성은 노위제 노하영 노형석 당호영 당화정 도유희 류새미 명태순 문소란 문정이 문홍수 민경나 민광기 민병찬 민성환 민수진 박경선 박경숙 박고심 박귀영 박다현 박대삼 박도희 박문숙 박미경 박민규 박상동 박선희 박성주 박세근 박세희 박솔민 박수호 박순이 박시은 박영숙 박옥련 박옥희 박용일 박은애 박정미 박정복 박정은 박주연 박주희 박지연 박지영 박지은 박찬경 박하니 박현수 박혜림 박혜정 박화경 방명애 배상순 배은정 배중석 배치혜 백순복 변동규 변동훈 봉하중 서동국 서성교 서원호 서의승 서정석 서희경 성명숙 성지영 성지혜 손명하 송경원 송우정 송은숙 송은정 송일설 송정미 송정선 송재용 신나리 신덕수 신동선 신민호 신성만 신수진 신윤순 신종현 신한나 신혜경 신홍연 신희숙 심권섭 심아름 심재민 심재숙 안수빈 안옥선 안현미 안형진 양관동 양명신 양민정 양지혜 양혜령 양혜리 양해진 양호열 엄경순 엄현희 오세용 오순주 오승범 오지수 오태훈 오하영 오하나 우창민 유인옥 유자영 윤나라 윤대현 윤동혁 윤영현 윤보라 윤석민 윤성재 윤이근 윤정희 윤주영 윤지현 이광성 이교순 이규성 이길원 이덕주 이동형 이동훈 이로서 이만승 이면우 이명호 이미영 이민기 이민주 이민환 이병재 이봉희 이상철 이상현 이선래 이선미 이선민 이선아 이실한 이 송 이수란 이숙진 이승화 이예성 이예일 이욱경 이욱희 이요한 이윤선 이원재 이은별 이은정 이용무 이인애 이재민 이재용 이재은 이정아 이정원 이정민 이정준 이정현 이주호 이지선 이지연 이지원A 이지원B 이지은A 이지은B 이지훈 이진용 이진중 이진희 이진희 이찬신 이찬영 이찬주 이창진 이창호 이태섭 이하나 이하영 이한미 이혁수 이현근 이혜지 이화정 임명숙 임수정 임은성 임중재 임재민 임현진 장선희 정수진 정용전 정은경 장인걸 전경도 전경선 전아름 전영숙 전정자 전 진 정근우 정기창 정다은 정미선 정미실 정민지 정보성 정봉은 정성희 정성민 정성수 정수진 정연상 정봉애 정영민 정옥자 정은정 정종일 정지혜 정태준 정하늘 정현정 정해진 조건희 조남주 조몽근 조미경 조봉래 조원희 조유진 조은일 조은희 조은희 조진만 조행금 주일수 지소연 진보라 진태욱 천소영 최경록 최덕영 최동미 최동희 최두수 최병원 최승원 최영아 최은희 최재석 최중훈 최중철 최찬식 최정홍 최대선 하은성 하은주 하중백 하효선 한석주 한성희 한숙자 한승연 한승진 한영실 한은지 한재경 한재용 함순식 함요한 함지연 허근구 현지원 홍관용 홍일선 홍정연 황소영 황수진 황순화 황정수 황지현 DR.K KRX국민행복재단 KT&G남서울본부 ODE SPC그룹 YMSA 교촌치킨 굿센스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동화나라어린이집 렌탈스타 상명대학교 서울동노회여전도회연합회 세 아상역 스포스기프트 신용보증기금 아워홈 알파스캔디스플레이 예비활동스 웰먼식품 우리은행(서울대학교지점) 유한특판 인텔 지니의화원 직산그린악구 투데코 핑크푹 하니금융나눔재단 한국국제연합봉사단 행복나라어린이집 훈이네해장국

개인수술 후원

김경애 이동원 이상훈 이수미 이종문 정인영 정향나 허한수 황지윤
동부산교회 서울동노회여전도회연합회 투데코

실로암요양원 후원

김광훈 김광희 김동희 김무경 김미정 김병석 김병숙 김복희 김숙현 김영선 김은철 김은희 김인경 김정숙 김중홍 김태웅 김형도 김호직 박고심 박대삼 박성일 박옥희 박은애 박주희 박지연 박지훈 서문섭 서중인 성옥순 성지혜 신동선 신승열 안정민 양민정 엄현희 오지수 윤찬호 이광열 이규민 이금선 이미경 이봉희 이상현 이숙경 이은희 이영태 이윤규 이은정 이진용 이화정 장혜승 전정희 정근우 조미경 조봉래 조영순 지정규 채병용 채효승 최도영 최영훈 최영태 하은주 한재근 함은창 함지영 함지훈 함한식 남원추어탕 늘사랑농원 무지개호스피스 씨제이프레스웨이 우리은행(광덕점) 코리아마트 해피빈

복지회 후원

고지후 권수진 권영진 김경애 김남식 김미경 김미혜 김아름 김영철 김정래 김정옥 김주연 김현석 김현정 나병택 남정환 맹석재 박옥희 서범수 심아름 윤재훈 이성표 이하나 임 영 임영희 정대영 조행금 주수정 최동희 최상국 허승희 홍성현
동일교회 태양팬클럽 해피빈

※ 후원금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쓰여집니다.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